

지속적인 성령 충만

오늘은 지속적인 성령 충만에 대해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17 : 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요한복음 17 : 23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지속적인 성령 충만은 성령님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여 지속적으로 성령의 지배하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지속적 성령 충만은 우리의 전인격이 성령님의 지배에 굴복하여 우리에게서 성령의 인격만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I. 예수님 안에 있었던 성령 충만부터 공부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형체로 임하는 성령 충만을
받으셨습니다(눅 3:22). 예수님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사셨다는 것은 너무 많아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 전체가 지속적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지속적 성령 충만의 비결은 무엇입니까?

우리 본문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십시오.

요한복음 17 : 21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

요한복음 17 : 23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

이 구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이 하나가 되어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가 되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둘째 사람 예수님의 지속적 성령충만의 비결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따로 나따로 살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언제나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되셔서 살으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와 예수님, 본체적으로 한 분 하나님이지만, 성부와 성자로 구별되는 두 위격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나 하는 질문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는가?

바로 그 대답이 Hypostatic Union, 이성일위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의 이성, Two Nature 가 있지만, 신성이 인성을 완전히 지배하여,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인성이 신성에 완전히 굴복하여 성령의 완전한 지배가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졌다. 바로 이것이 둘째 사람이신 예수님 안에 발견되는 Hypostatic Union, 지속적 성령충만의 비결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령이 왕이 되어 있다!

성령이 인성을 완전히 지배하여 더 이상 인성이 나오지 않는다. 성령으로 전인격이 통일되어 성령의 인격이 되었다. 성령의 열매가 둘째 사람 예수님의 인격 안에 만발하고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한다 ! 바로 이것이 둘째 사람 예수님이 보여 주신 지속적 성령 충만의 모범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성일위가 우리의 성령 충만의 신학적 바탕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지속적 성령 충만의 목표입니다.

II. 우리의 지속적 성령 충만

성령께서 우리의 전인격을 지배하는 것!

성령께 우리의 전인격이 굴복하는 것!

이것이 둘째 사람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지속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시적 경험만 될 뿐 지속적인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일시적 충만 함에 있다가 얼마있다가는 예수님은 잊어 버리고 자기가 왕노릇하며 사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지속적으로 성령께 굴복하여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로 계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영원히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이런 상태를 벗어나 영원히 지속적성령 충만의 상태에 있을 수 있는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기서 지속적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가장 큰 적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성공적인 신앙 생활, 성령 충만을 방해하는 것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발견하면 해답의 반은 얻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극복하지 못하면 지속적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네 자신을 극복하라!

네 자신에서 해방되어라!

이것이 지속적 성령 충만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해답이 됩니다.

네 자신이 가장 큰 적이다.

아버지와 예수님이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네 자신을 극복해야 한다.

항상 왕노릇을 하는 네 자신이 문제다.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극복해야 합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해답의 반은 얻어졌습니다.

우리 여기에 관련되는 성경구절을 찾고 가십시오. 구약에서는 자기 극복에 대하여

잠언 16 : 32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바로 이 구절이 네 자신을 다스려라 무엇보다 네 마음을 다스리라는 말입니다.

자기를 극복한다는 것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가 다스린다는 말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경은 왜 자기를 다스려야만 한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타락으로 인하여 상실된 마음의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 : 28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상실된 마음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는 것을 행하려 합니다. 통제 불능의 상태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지 않으면 지속적 성령충만은 멀고먼 곳, 일평생 이루어지지 않을 곳에 있습니다. 자기 극복, 다시 말하면 타락한 육을 극복, 옛사람에게서 해방을 받지 못하면 지속적 성령 충만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이 자기 극복을 위한 첫번째 스텝인가?

성경은 우리를 위해 무슨 길을 제시하고 있나?

지속적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는 육의 지배를 받는 마음이 무엇보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바울사도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말을 다음과 같이 표현했습니다.

로마서 12 : 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마음이 새로와지지 않으면 지속적 성령충만은 멀고먼 곳, 일평생 이루어지지 않을 곳에 있습니다.

자기 극복, 다시 말하면 타락한 육을 극복, 옛사람에게서 해방을 받지 못하면 지속적 성령 충만은 불가능합니다.

이와같이 마음이 타락으로 인하여 마음에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찬것을 오염이라고 말합니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우리 이것을 공부하기 위해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잡고 건너가십시오.

아담이 우리에게 물려준 것을 죄책과 오염입니다. **죄책은 무엇이나 하면 죄에 대한 책임으로 죽음을 말하고,**

오염은 죄책의 결과로 우리 마음 안에 가득찬 더러움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오염을

마태복음 15 : 19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횡방이니

마태복음 15 : 20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죄책과 오염에서 해방을 줍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므로 죄책으로서의 죽음이 면제되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옛사람을 함께 못박아 죽게 하심으로 오염으로 부터 해방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죄책에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완전하게 믿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믿음은 갖지 못한 사람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참다운 자유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로마서 6 : 6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함이니

이것은 믿음으로 받아 들이는 진리입니다. 경험으로 받아 들이는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받아 들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겨 주십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으로 여겨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으로 여겨야 합니다.

로마서 6 : 11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우리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안에서 오염이 제거되는 경험도 은혜에 의존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성령충만의 은혜를 힘입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오면 옛사람의 밧줄은 썩은 새끼줄 끊어지듯 끊어집니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줄 착각해서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쭉 지속적인 성령 충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해방의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하는 말에서 신앙 생활은 은혜로 되는 것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은혜로 해야지 자신의 노력으로 신앙 생활을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바로 제가 말하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 자신에게서 해방되는 것, 오염에서 해방되는 것, 옛사람에게서 해방되는 것,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자유 가운데 생활하는 것은 은혜로 됩니다. 성령 충만의 은혜로 됩니다. 지속적 성령 충만으로 됩니다.

이것에 대해 더 알고 싶은 분은 <하나님의 나라> 첫째주 “예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III. 환경을 지배하는 믿음

다음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달려 드는 것이 환경입니다. 인생은 불티가 하늘로 올라감 같이 고난을 위하여 태어났다고 합니다. 아무리 태평성세를 구가하는 것 같아도 언제 고나의 파도가 달려 올지 모릅니다. 더구나 요사이 같은 경제 위기에서는 우리의 숨통을 막으려고 불길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이럴 때 성령 충만으로 파도 앞에 담대히 서고, 홍수를 타고오시는 여호와와 함께 홍수위에 올라타지 않으면 홍수에 쓸려 가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홍수를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 홍수를 다스리는 법이 바로 지속적 성령 충만입니다. 지속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는 사람은 홍수가 달려 오더라도 홍수위에 좌정하신 여호와를 보면서 홍수를 올라타고 홍수를 지배합니다.

시편 29 : 10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좌정하셨음이여 여호와께서 영영토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시편 29 : 11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심이여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우리가 성령 충만의 지배 아래 있으면 홍수가 밀려와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그 사람을 다스리면 그 것은 곧바로 두려움으로 변합니다.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이 자기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앙을 회개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파도와 홍수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지만, 은혜 아래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파도와 홍수는 삼키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살찌라는 잔치상으로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다윗은 시 23 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말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 하지 않을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고백합니다.

시편 23 : 4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믿는 자나 안믿는 자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마찬가지지만, 믿음이 있는 자에게는 먹고 살지라는 밥상으로 다가오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죽이려고 달려드는 도구로 달려 온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속적 성령 충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새로와 져야 하고, 환경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에서 해결을 주셨습니다.

IV. 말씀과 기도

다음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도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도구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없이 성령 충만은 없습니다. 옛사람의 밋줄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환경의 압박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강대상에서 말씀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사람의 예화가 90%를 차지합니다. 예수님은 결론 때 잠시 인사만 하고 들어 가십니다.

예수님은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기도와 말씀이 충만할 때 홍해 바다를 가른 능력은 그 신비한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기도와 말씀은 악세사리가 아닙니다. 옛사람으로 부터 자유, 환경을 다스리고 싶은 사람은 목숨을 내어 놓고, 말씀 공부를 해야 하고 기도를 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 공부는 바울 성서 아카데미 교재를 사용하여 하시라고 권하고,

기도는 자기의 믿음과 사역에 따라 기도 시간을 정하되

세계를 움직여 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하루 네시간은 기도하라고 권합니다.

이것은 제가 임의로 하는 말이 아니고, 요한 웨슬레가 한 말입니다

요한 웨슬레는 말하길 하루 네시간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주앞에서 대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 사역자는 적어도 두시간은 매일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넘버원이 되겠다고 목표를 정하고 실천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위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만),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